



# 이건 정말 중요한 지표

Economist 안소은 02)6915-5657 ase331@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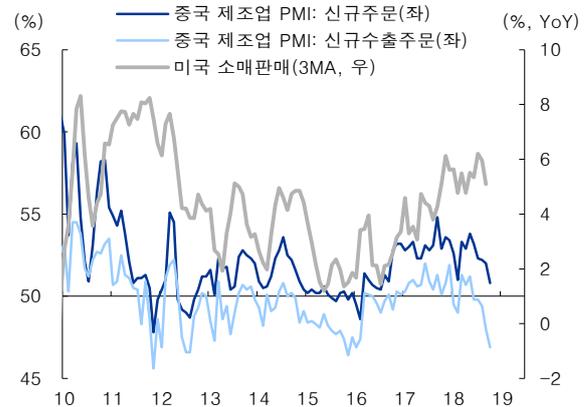
정용택 02)6915-5701 ytjeong0815@ibks.com

## 연말 쇼핑시즌, 반등을 가져올까?

### Focus on Week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연말 쇼핑시즌 효과를 기대해 볼만한 시점임. 11월부터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시즌이 시작되는데, 특히 불안한 중국 경기가 쇼핑시즌의 수혜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
- 쇼핑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확충을 위해 신규주문과 생산 등을 늘리기 때문에 쇼핑시즌 영향은 제조업 PMI와 같은 기업 섀티먼트에 선반영됨.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제조업 PMI 추이를 보면 올해 쇼핑시즌을 통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중국의 PMI 하위항목들이 과거 쇼핑시즌 전에 나타났던 계절성과 달리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 특히 중국에서는 내수뿐 아니라 미국 쇼핑시즌에 따른 해외 수요도 중요하데, 미국 소비가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신규수출주문 항목이 가파르게 둔화됨. 이는 중국 내수가 뒷받침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교역 상황에서는 미국 쇼핑시즌에 따른 수혜를 과거만큼 얻기 어려움을 의미함

### 중국의 연말 쇼핑시즌 효과를 제약하는 무역분쟁



자료: CEIC, IBK투자증권

### Weekly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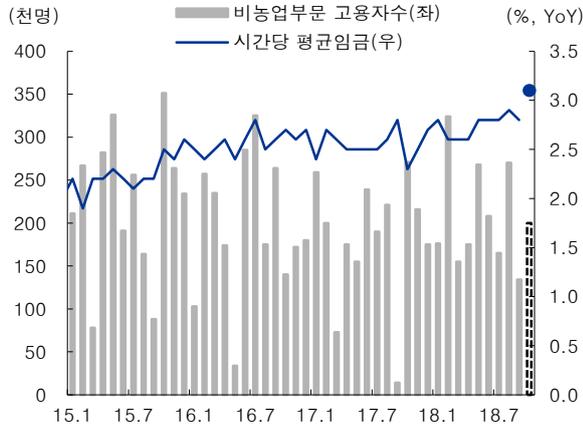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예상치	이전치	비고
11.2	미국	10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감	20.0만명	13.4만명	전월 허리케인 영향이 완화되면서 고용 회복됐을 것으로 예상
	미국	10월	실업률	3.7%	3.7%	양적 고용 호조 지속되는 가운데 약 50년래 최저 실업률 유지될 것
	미국	9월	제조업수주 MoM	0.5%	2.3%	전월 운송 부문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 축소 예상
11.6	미국	10월	ISM 비제조업지수	59.4	61.6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기업 체감 경기 하락 전망
	유로존	9월	소매판매 MoM	0.1%	-0.2%	소폭 증가하겠지만 소비심리 부진 감인시 약한 수준에 그칠 전망
11.7	중국	10월	외환보유고	-	3.09조달러	위안화 약세에 대응하면서 외환보유고 추가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
	중국	10월	수출 YoY	-	14.5%	미국 관세 부과 확대와 국경절 연휴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예상
	중국	10월	수입 YoY	-	14.3%	내수 부양책으로 소비가 상대적으로 견조해 높은 증가세 지속 예상
	중국	10월	무역수지	-	317억달러	수출입 모두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유지될 전망
11.8	중국	10월	외국인직접투자(CNY) YoY	-	8.0%	미-중 무역분쟁으로 외국인투자 유입 둔화됐을 가능성
	중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2.5%	국경절 식품 가격 상승과 석유가격 인상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
	중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3.6%	석탄과 석유류 등 에너지 물가 중심으로 상승세 완만하게 하락 예상
11.9	미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0.2%	0.2%	유가 하락에도 관세 부과와 인건비 영향으로 상승세 지속됐을 것
	중국	10월	신규 위안화 대출	-	1.38조위안	대외 불안에 대응해 1조 위안 이상의 유동성 공급 유지됐을 전망
11.10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97.9	98.6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연준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추가 하락 예상

\* 한국 경제지표의 예상치는 당사 추정치이고, 여타 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

날짜	국가	이벤트	비고
11.5	미국	이란 2차 제재 개시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란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 재개
11.6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탈환 여부에 관심. 최근 여론에 따르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우세
11.7~8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기자회견이 없는 회의로, 기준금리는 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컨센서스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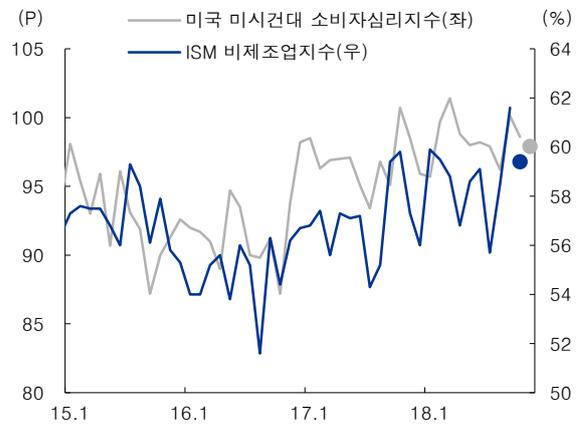
Chart of the Week

미국 10월 고용, 양적 고용 호조 계속되며 임금 상승 압력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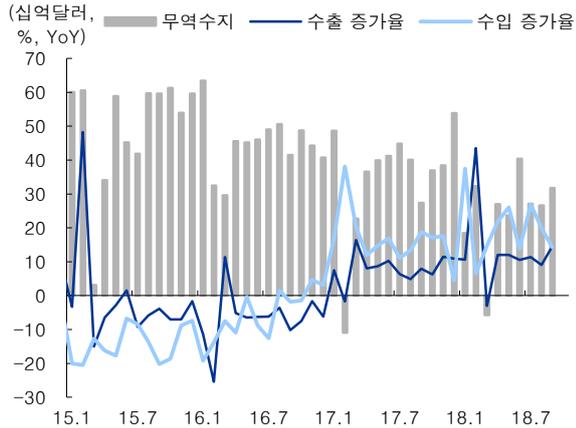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 기업 및 가계センチ먼트, 대내외 불안으로 소폭 하락 예상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중국 10월 무역, 미국의 관세 부과 확대로 수출 모멘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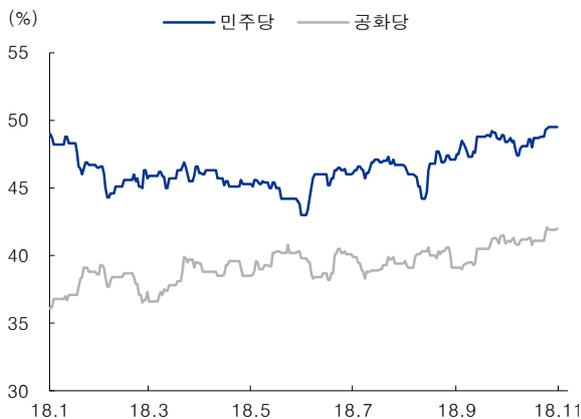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중국 10월 외환보유고, 위안화 약세에 대응하며 추가 감소 예상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에 주목



자료: RealClearPolitics, IBK투자증권

11월 FOMC: 기준금리 및 정책 동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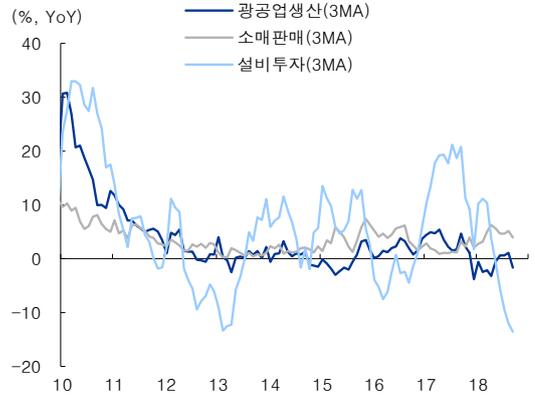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Weekly Review

- 한국 9월 산업활동동향과 10월 수출입, 소비자물가 등 월말월초 주요 지표들이 발표됨.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달라 조업일수에 차이가 있었던 점이 전반적인 지표 상에 노이즈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더욱 확대됨
- 9월 생산과 소비, 투자 증가율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품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음. 반면 생산 측면에서는 반도체 품목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함. 10월 수출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제조업 경기 호조와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 효과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 글로벌 교역 불안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해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내수 부문 역시 연말 대내외 쇼핑 시즌 효과와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로 반등 가능성이 있음. 다만 근본적으로 고용이나 투자환경의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 반등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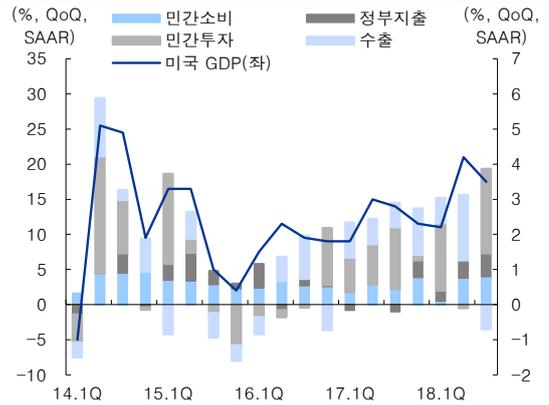
한국 경제: 내수는 둔화, 성장 동력은 여전히 수출



자료: 통계청, IBK투자증권

-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3분기 GDP는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민간소비와 재고 증가의 영향이 컸음. 대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감세 효과와 고용 호조 등이 소비를 뒷받침하는 상황. 기업들의 재고 증가 역시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높은 수요에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 호조의 결과라고 해석 가능
-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과 최근 주식시장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약 1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한 소비심리가 유지되고 있음. 계속되는 고용 호조와 임금 상승 압력, 연말 쇼핑시즌 효과 등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도 소비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 민간소비 호조 계속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발표치	예상치	이전치	전기 대비 변동
10.26	미국	3Q	GDP 속보치 연율 QoQ	3.5%	3.3%	4.2%	▼
10.29	미국	9월	개인소득 MoM	0.2%	0.4%	0.4%	▼
	미국	9월	개인소비 MoM	0.4%	0.4%	0.5%	▼
10.30	유로존	3Q	GDP 속보치 YoY	1.7%	1.8%	2.2%	▼
	미국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37.9	135.9	135.3	▲
10.31	한국	9월	광공업생산 YoY	-8.4%	-3.2%	2.5%	▼
	중국	10월	통계청 제조업 PMI	50.2	50.6	50.8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2%	2.2%	2.1%	▲
	미국	10월	ADP 민간 고용	22.7만명	18.7만명	21.8만명	▲
11.1	한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2%	-0.3%	0.7%	▼
	한국	10월	수출 YoY	22.7%	15.5%	-8.2%	▲
	한국	10월	수입 YoY	27.9%	18.2%	-1.6%	▲
	한국	10월	무역수지	65.5억달러	70억달러	95.7억달러	▼
	중국	10월	Caixin 제조업 PMI	50.1	50.0	50.0	▲
	미국	10월	ISM 제조업지수	57.7	59.0	59.8	▼

\* 한국 경제지표의 예상치는 당사 추정치이고, 여타 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